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59

JCCT 2022-1-7

##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검사를 이용한 경기력 수준 판별 : 청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 Determination of performance level usi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management test: for youth soccer players

김덕진\*

Deokjin Kim\*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성취목표성향(과제, 자아지향성)과 자기관리(몸, 대인, 훈련, 정신 관리) 검사로 우수선수(연령대별 대표선수)와 비우수선수(일반선수)를 판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고등학교 선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연령대별 대표선수 131명, 일반선수 168명 등 총 299명(중학생 144명, 고등학생 1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검사지로는 Duda와 Nicholls(1989)가 개발한 스포츠 성취목표지향성에 관한 검사지(TEOSQ: Task &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와 허정훈(2003)이 개발한 운동선수 자기관리 검사지(ASMQ: Athletes' Self-Manage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버전을 이용해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 요인인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은 둘 다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를 판별하지 못하는 검사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자기관리 검사는 하위 요인중 대인관리를 제외한 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가 우수선수와 비우수 선수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기관리 중 정신관리가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청소년 축구선수, 과제지향성, 자아지향성, 자기관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excellent and non-excellent players could be distinguished by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task-orientation, ego-orientation) test and the self-management(physical, interpersonal, training, mental management) test targeting youth soccer player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299 players(144 middle school students, 155 high school students) including 131 representative players by age and 168 general players who registered with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The questionnaires for data collection include the Task &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TEOSQ) developed by Duda and Nicholls(1989) and the athlete self-management questionnaire(ASMQ) developed by Heo Jeong-hoon(2003) was used.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3 vers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task orientation and ego orientation, which are sub-factor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were both confirmed as tests that did not discriminate between excellent and non-excellent players. On the other hand, the self-management test was confirmed as a test that can discriminate between excellent and non-excellent players in body management, training management, and mental management excluding interpersonal management among the sub-factors of self-managemnet. In particular, among self-management, mental management was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iscriminating between excellent and non-excellent athletes.

**Key words** : Youth Soccer Player, Task Orientation, Ego Orientation, Self-management

\*정희원,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2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2, 2021 / Revised: January 1,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kdj275@nsu.ac.kr

Dept. of Sport & Health Care, Namseoul. Univ Korea

## 1. 서론

스포츠에 있어서 경쟁이란 요소는 선수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강력한 촉진제이다.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나은 기록이 생성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예를 들어, 육상 높이뛰기의 포스배리 자세와 투포환의 회전투구법 등)이 개발되기도 한다.

경쟁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선수간 우열의 구도를 만들기도 한다. 어린 선수들이 가령에 따라 신체적인 조건이 향상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서서히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우수선수로 분류되면 대학진학이나 실업, 프로팀으로의 진출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선수생활을 마감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또래 선수들끼리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미래의 선수생활도 가능해 진다.

우리나라의 축구 시스템은 연령대별 대표선수를 선발해서 정기적으로 소집훈련을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된 연령대별 지도자들이 각 지역의 축구팀을 방문하거나 대회장을 찾아가서 선수들의 실력을 평가한 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이 연령대별 국가대표로서 국가대항전에 출전하게 된다. 축구선수라면 연령대별 대표선수가 되는 것이 큰 목표라 할 수 있겠다. 특히, U-17세 이상의 선수들에게 있어서 연령대별 대표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다. 이러한 대회는 전 세계 축구관계자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해외 프로구단으로의 입단 가능성을 높게 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평가 방안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지도자의 경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도 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수팀을 가릴 뿐이지 한국 특성에 부합된 기본기 개발이나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1].

그렇다면 축구에 있어서 경기력을 결정 짓는 요인은 무엇일까? 히딩크 감독은 축구에서의 경기력은 체력, 기술, 심리 및 인지 요인의 복합적 함수 관계라고 하였고 윤영길, 이용수[2]는 체력, 기술, 심리 그리고 전술운용의 함수라 하는 등 축구 관련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체력, 기술, 심리를 중요한 요인으로 뽑고 있다.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함상현[3]의 연구

에서는 우수팀의 선수들이 비우수팀의 선수들에 비해서 체력 및 기술요소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경태[4]가 초, 중, 고등학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축구선수에게 있어서 체력과 기술은 경기력을 판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축구선수의 경기력을 형성하는 요인 중 체력과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개발이 곧바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훈련과 연습에 임하는 마음자세, 그리고 경기를 치를때의 심리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심리적 변수들이 체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소일 수가 있다.

스포츠 선수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주관적 목표성향(goal orientation)을 갖고 있다. Duda와 Nicholls[5]는 이를 성취목표성향이라 명명하고 과제지향성(task orientation)과 자아지향성(ego orientation)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비교의 기준이 자신이 되고 과제의 학습과 숙련에 초점을 두는 성향이고 후자는 타인이 비교 기준이 되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데 중요성을 두는 성향이다[6]. 이 두가지 성향은 서로 상쇄되는 성질의 변수는 아니다. 두 성향이 둘 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포츠 선수들은 대체로 이 두 성향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우수 선수들이 비우수 선수에 비해서 유의미한 차이로 둘 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수 선수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제지향성이 자아지향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7]. 스포츠가 가진 특수성으로 볼 때, 타인보다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 기술과 같은 경기력 결정요소들을 잘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수한 선수일수록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고, 과제지향성을 가질수록 우수선수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성취목표성향으로 경기력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목표성향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겠지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축구와 같은 격렬한 경기는 부상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종목이므로 늘 신체적,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허정훈[8]은 자기관리를 자기통제 또는 자기조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았고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 부분까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로 구분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우수한 선수일수록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게 공통된 결과이다 [9][10][11].

그동안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를 주제로 한 연구는 다수 있다. 중학교 축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자기효능감과 경기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12],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관한 구조적 관계[13], 중학교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 훈련동기분위기 및 경쟁상태 불안의 관계[14], 유소년 축구선수의 자기관리가 운동몰입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11]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축구선수들의 심리적 변수간 관계나 영향력을 살펴 본 것이어서 이 변수들이 실제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을 예측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연령별 대표로 선발한 유소년 선수들과 같은 또래의 일반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관리가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제지향성, 자아지향성)과 자기관리(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는 경기력수준을 판별하는데 유용한가?
2.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제지향성, 자아지향성)과 자기관리(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 중 어떤 변수들의 판별력이 높으며 그 순서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중,고등학교 축구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지역별 또는 연령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를 우수선수로, 그러한 경험이 없는 선수를 비우수 선수로 구분하였다. 총 340명에게 설문을 받았고 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하다고 판단된 41부를 제외하고 중학교 선수 144명, 고등학교 선수 155명을 최종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포지션으로는 골키퍼(GK)가 29명, 수비수(DF)가 95명, 미드필더(MD)가 108명 그리고 공격수(FW)가 67명이었다. 경기력 수준으로는 우수선수가 131명, 비우수 선수가 168명이었다. <표 1>은 연구대상의 학교급별, 포지션별 그리고 경기력 수준별 인원수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특성	구분	N	%
학교급	중학교	144	48.2
	고등학교	155	51.8
포지션	GK	29	9.7
	DF	95	31.8
	MF	108	36.1
	FW	67	22.4
경기력수준	우수	131	43.8
	비우수	168	56.2
합		299	100

### 2. 검사도구

#### 1) 성취목표성향

성취목표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Duda와 Nicholls[5]가 개발한 스포츠 성취목표지향성에 관한 검사지(TEOSQ: Task &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김병준[15]이 번안하였고 요인구조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바 있다. 이 검사지는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을 묻는 질문이 각각 7문항과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해당되는 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은 과제지향성이 .80, 자아지향성이 .76으로 나타났다.

## 2) 자기관리

자기관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허정훈[8]이 개발한 운동선수 자기관리 검사지(ASMQ: Athletes' Self-Manage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에는 운동선수의 자기관리가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 등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해당되는 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개발당시의 Cronbach  $\alpha$ 값은 몸관리가 .70, 대인관리가 .71, 훈련관리가 .69 그리고 정신관리가 .6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75, .67, .64, .64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유소년 대표 소집기간 동안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 1명이 소집된 훈련장에 직접 방문하여 각각의 연령대별 감독과 코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측정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지나는 길에 들러서 설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대한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휴식시간이나 취침전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설문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 그리고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실시하였고 작성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처리방법으로는 첫째, 자료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가 개발 당시의 요인구조를 유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설정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 $\alpha$ )은 .05로 설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가지 검사지가 최초 개발 당시의 요인구조를 유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법과 직각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측정변수의 공통요인 추출시 아이젠값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4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16]. 이에 요인적재치가 .40 미만이거나 중복 적재되는 문항들은 삭제하고 재분석하여 타당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표 2>는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에 관한 검사지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이다. 최초 3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요인적재치가 낮은 2번 문항을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 2요인으로 분류되었고 과제지향성 6문항(고유치 3.955), 자아지향성 6문항(고유치 1.941)으로 수렴되었다. 이는 검사지 개발 당시의 상태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갖는 것이다. 전체 변수의 설명량은 49.46%로 나타났다. 그리고 검사지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  $\alpha$ )는 과제지향성이 .80, 자아지향성이 .76으로 나타났다.

표 2. 성취목표성향 검사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est

문항	과제	자아
8	.784	
7	.782	
13	.764	
10	.735	
12	.622	
5	.457	
4		.756
6		.745
11		.709
3		.666
9		.606
1		.459
고유치	3.955	1.941
설명변량	25.64	25.64
누적변량	23.83	49.46
신뢰도	.80	.76
KMO=.833, $\chi^2=1010.309$ , $p=.000$		

<표 3>은 운동선수 자기관리 검사지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이다. 최초 분석시 5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요인적재치가 .40 미만인 3번, 5번, 17번 문항을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 4요인으로 수렴되었다. 몸관리 4문항(고유치 4.426), 대인관리 4문항(고유치), 훈련관리 3문항(고유치 1.300), 정신관리 4문항(고유치 1.193)으로 나타났고 전체 변수의 53.19%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지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  $\alpha$ )는

몸관리가 .75, 대인관리가 .67, 훈련관리가 .64, 정신관리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기관리 검사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elf-management test

문항	몸	대인	훈련	정신
8	.811			
7	.781			
14	.725			
4	.477			
2		.853		
10		.830		
15		.803		
12		.674		
6			.837	
1			.831	
18			.605	
13				.766
9				.690
11				.599
16				.499
고유치	4.426	1.497	1.300	1.193
설명변량	15.39	12.63	12.61	12.56
누적변량	15.39	28.02	40.63	53.19
신뢰도	.75	.67	.64	.64

KMO=.786,  $\chi^2=1230.575$ ,  $p=.000$

## 2. 성취목표성향의 경기력수준 판별

성취목표성향이 경기력수준을 판별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경기력수준을, 예측변수로 성취목표성향(과제, 자아지향성)을 투입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집단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 결과  
 Table 4. Test results for homogeneity of group means

	Wilk's 랏다	F	df1	df2	p
과제지향성	.997	.989	1	297	.321
자아지향성	.995	1.478	1	297	.225

<표 4>에서 성취목표성향의 하위 변수인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이 경기력수준을 판별하는 유의한 설명변수인가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 모두 경기력수준을 판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경기력수준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Table 5. Discriminant analysis for performance level

	표준화 정준 판별 함수계수	정준판별 함수계수	구조행 렬		
과제 지향성	-.856	-1.362	-.500		
자아 지향성	.936	1.325	.611		
고유값	정준상관	Wilks' 랏다	$\chi^2$	df	p
.013	.115	.987	3.916	2	.141

또한 <표 5>를 살펴보면 판별함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에서 집단내 분산을 총분산으로 나눈 값인 Wilks' 랏다값이 .987,  $\chi^2$ 이 3.916( $p>.05$ )으로 나타나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판별함수계수에 의한 분류 결과  
 Table 6. Classification by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집단 중심치	예측되는 소속집단		사례 수	분류 정확도
		우수 집단	비우수 집단		
우수 집단	-.130	66 (50.4%)	65 (49.6%)	131	55.5 %
비우수 집단	.102	68 (40.5%)	100 (59.5%)	168	

<표 6>을 살펴보면 각 집단의 판별점수에 대한 평균 값을 나타내는 집단중심치는 경기력 우수집단이 -.130 이고, 비우수집단이 .102로 두 집단간 평균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집단별로 잘 분류되지 않았다. 한편, 판별함수가 실제의 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분류정확도(hit ratio)를 분석한 결과, 우수집단의 50.4%, 비우수집단의 59.8%가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적중률)는 55.8%로 나타나 분류의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기관리의 경기력수준 판별

자기관리가 경기력수준을 판별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경기력수준을, 예측변수로 자기관리(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를 투입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집단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 결과  
Table 7. Test results for homogeneity of group means

	Wilk's 람다	F	df1	df2	p
몸관리	.976	7.275	1	297	.007
대인관리	.997	.924	1	297	.337
훈련관리	.972	8.655	1	297	.004
정신관리	.936	20.260	1	297	.000

<표 7>에서 자기관리의 하위 변수인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가 경기력수준을 판별하는 유의한 설명변수인가를 살펴본 결과, 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 변수는 경기력수준 집단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경기력수준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Table 8. Discriminant analysis for performance level

	표준화 정준 판별 함수계수	정준판별 함수계수	구조행렬
몸관리	.312	.476	.543
대인관리	-.319	-.597	.193
훈련관리	.299	.451	.592
정신관리	.790	1.162	.906

  

고유값	정준상관	Wilk's 람다	$\chi^2$	df	p
.083	.277	.923	23.562	4	.000

<표 8>은 판별함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집단내 분산을 총분산으로 나눈 값인 Wilks'람다값이 .923,  $\chi^2$ 이 23.562( $p < .001$ )로 나타나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판별변수와 실제의 판별집단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정준상관계수는 .277로 나타났으며 경기력수준의 판별에 있어서 정신관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고 다음으로는 몸관리, 훈련관리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를 살펴보면 각 집단의 판별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는 집단중심치는 경기력 우수집단이 .325이고, 비우수집단이 -.254로 두 집단간 평균차가 크게 나타나 집단별로 분류가 잘 되었다. 한편, 판별함수가 실제의 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분류정확도(hit ratio)를 분석한 결과, 우수집단의 66.4%, 비우수집단의 60.7%가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적중률)는 63.2%로 나타나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판별함수계수에 의한 분류 결과  
Table 9. Classification by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집단 중심치	예측되는 소속집단		사례 수	분류 정확 도
		우수 집단	비우수 집단		
우수 집단	.325	87 (66.4)	44 (33.6)	131	63.2%
비우수 집단	-.254	66 (39.3)	102 (60.7)	168	

#### IV. 논 의

축구는 체력, 기능, 심리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경기력이 결정된다[17]. 이 중에서 스피드, 파워, 지구력, 유연성과 같은 체력관련 변수는 절대적인 경기력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드리블, 패스, 슈팅, 헤더와 같은 기능도 중요한 경기력 결정요인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요인을 보유하고도 우수한 선수로 성장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다.

사람은 모두 신념, 가치관, 태도, 동기와 같은 심리관련 변수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 심리측정학 분야에서는 각종 심리검사를 개발해서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축구선수는 6~9세 정도에 축구를 시작하게 되고 학교내,외에서 운영되는 축구부나 축구클럽에서 축구 수업을 받게 된다. 10~11세 정도가 되면 선수반 또는 취미반으로 구분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지도자의 안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 특출난 선수들은 연령별 대표로 선발되어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동기상실[18], 실력부족, 지도자와의 불화, 선배와의 갈등, 의사결정에서의 소외[19] 등으로 운동을 관두게 된다. 중도탈락 시기가 늦어질수록 학업성취도의 저하, 취미와 적성 탐색 기회의 박탈,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정상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체력, 기능 검사와 더불어 심리 검사를 조기에 실시해서 축구선수로서 성공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우수

선수(연령대별 대표 선수)와 비우수 선수(일반 선수)를 판별할 수 있는 심리적 변수를 찾기 위해서 성취목표성향(과제지향성, 자아지향성)과 자기관리(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 검사를 실시해 보았다. 검사한 자료를 토대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 요인인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은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를 판별하지 못하는 심리적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택진[20]이 유소년 배드민턴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경기력 수준에 따라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유소년 축구선수는 우수 선수나 비우수 선수 모두 체력 및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과제지향) 못지 않게 상대선수나 팀을 이기는 것(자아지향)에도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스포츠는 과정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다고 볼 수 없다. 내용이 좋았어도 패배할 수 있고 내용이 나빴어도 승리할 수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선수가 후자의 상황이 연출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스포츠의 특성상 결국 순위가 선수의 경기력수준을 대변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소년 축구선수에 있어서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중 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는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를 판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이 많을수록 자기관리 행동유형 하위요인 중 정신력관리요인과 생활관리, 고유 행동관리 및 몸관리요인이 높은 것으로, 또한 경기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관리 하위요인들 중 대인관계관리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종탁[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결과는 자기관리의 4가지 요인에서 정신관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축구는 운동 강도가 매우 높고, 섬세한 기술과 잘 짜여진 조직력 등이 필요한 종목이다[1]. 이들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각종 체력,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훈련 강도를 견뎌내는 것은 정신력이 좌우한다. 우수한 선수가 되어겠다는 동기유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같은 정신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과이다. 유소년 축구 지도자가 선수를 관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성취목표성향(과제, 자아지향성) 검사와 자기관리(몸, 대인, 훈련, 정신관리) 검사로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를 판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 요인인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은 둘 다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를 판별하지 못하는 검사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자기관리 검사는 하위 요인중 대인관리를 제외한 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가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기관리 중 정신관리가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유소년 축구 지도자는 체력, 기술, 전술 훈련 외에도 정신적 측면의 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병행해서 실시해야 하겠다.

## References

- [1] E.S. Kim, E.T. Choi, and Y.S. Lee, "Drema comes true: From training to practice - 3rd year middle school", Korea Football Association, 2002.
- [2] Y.K. Yun, and Y.S. Lee, "Hierarchical Importance and Structure of Factors in Football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17, No. 4, pp. 87-100, 2006.
- [3] S.H. Ham,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ic Performance and the Level of Physical Fitness and Basic Skills among Youth Soccer Team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Coaching, Vol. 1, No. 1, pp. 28-37, 2015.
- [4] K.T. Lee,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cer skills on school level soccer players and the level of physical fitness and performance",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14.
- [5] J.L. Duda, and J.G. Nicholls, "The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Unpublished manuscript, 1989.
- [6] Y.K. Kim, J.H. Kang, and D.J. Kim, "The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management and sport mental power of football player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12, No. 3, pp. 9-16, 2010.
- [7] D.J. Kim, "Effect of goal-orientation on sport-stress in Korea national youth soccer players", Korean

-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18, No. 3, pp. 525-536, 2009.
- [8] J.H. He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thletes' Self-Management Questionnaire (ASMQ)",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14, No. 2, pp. 95-109, 2003.
- [9] J.H.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Strength, self-management and Sportpersonship according to cognitive Performance level of Student Athlete",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9, No. 1, pp. 247-256, 2007.
- [10] B.C. Chung, "Effect of Self-Management, Sport Confidence, Sport Mental Power on Perceived Performance of middle and high school athlet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3, No. 2, pp. 105-121, 2014.
- [11] H.S. Jung, "The impact of Youth Soccer Players' Self-Management on Sports Commitment and Performance", Master thesis, Kookmin University, 2021.
- [12] Y.S. Kim,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Self-efficacy and Game Performance of Middle School Soccer Players", Master thesis, Mokpo University, 2020.
- [13] K.J.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iency, Psychological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High School Soccer Players", Doctoral thesis, Dankook University, 2021.
- [14] N.S. Kim, and J.K. Baek,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occer Playe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raining Motive Atmosphere and Competitive State",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Vol. 8, No. 4, pp. 55-66, 2020. DOI :10.24007/ajpess.2020.8.4.004
- [15] B.J. Kim, "Goal Orientation as a Predictor of Sources of Enjoyment and Stress in Youth Sport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12, No. 1, pp. 125-140, 2001.
- [16] J.F. Hair, R.E. Anderson, R.L. Tatham, and W.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4th ed.)", NJ: Prentice Hall, 1995.
- [17] H. Ha, and J.R. Par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Soccer Players' Performance in the Middle &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5, pp. 125-141, 2018.
- [18] J.K. Choi, S.Z. Zae, and S.M. Lee, "The story of high school life of soccer player who were dropped ou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4, pp. 801-810, 2021.
- [19] S.H. Cho, "A Study on Exercise Stress, Exercise Adherence, and Drop Out of University Soccer Player", Master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3.
- [20] D.J. Kim,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Level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Youth Badminton Player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1, pp. 364-368, 2021. DOI :10.17703/JCCT.2021.7.1.364
- [21] J.T. Kim, "The Influences of Self-management on Satisfaction of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in Combative Athletes",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Vol. 11, No. 3, pp. 305-318, 2009.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